

01 삼년 고개 (三年峠)

2015/01/09 &

<p>옛날, 어느 마을에 삼년고개가 있었습니다. 이 고개에서 넘어진 사람은 삼 년밖에 살지 못하는 전설 때문에 삼년고개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p>		<p>昔、ある村に三年峠がありました。この峠で転んだ人は三年しか生きられないという伝説のために三年頭だと呼ぶことになったのです。</p>
고개	峠	
넘어지다	倒れる, 転ぶ	
전설	【傳説】 伝説	

<p>어느 날, 머리카락과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삼년고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넘어질까 봐 조심조심 걷고 있는 할아버지 앞으로 토끼 한 마리가 짱충짱충 뛰어났습니다. 놀란 할아버지는 뒤로 벌렁 넘어지고 말았습니다.</p>		<p>ある日、髪の毛とひげが白いお爺さんが三年峠を越えていました。転ぶだろうかと気を付けて歩いているお爺さんの前にうさぎが一匹ぴょんぴょんとかけていきました。驚いたお爺さんは、後ろにばたっと転んでしまいました。</p>
머리카락	髪の毛	
수염	【鬚髯】 髭	
넘어가다	越える	
넘어질까 봐	転ぶかもしれない	-ㄹ까 보다...~かもしれない ~だろうか
짱충짱충	ぴょんぴょんと	
벌렁	ころっと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転んでしまいました	I + 말다...~してしまう

<p>“ㅇ이고, 나는 이제 죽었네. 나 죽었어!” 할아버지는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한참 동안 울던 할아버지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p>		<p>「ああ、私は今死んだよ。私死んだよ!」お爺さんは土地を叩いて泣きました。しばらく泣いたお爺さんは力なく家に戻りました。</p>

<p>“할멈, 나는 이제 삼 년밖에 못 살아. 삼년고개에서 넘어졌단 말이오. 하필 거기에서 넘어질 게 뭐람.”</p>		<p>「おばあさん、私はもう三年しか生きられない。三年峠で転んだということだ。よりによってそこで転ぶことが倒れて何ということか。」</p>
할멈	おばあさん	할멈 (お爺さん)
하필	よりによって	何の必要があって

<p>할아버지는 걱정을 하다가 병이 났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옆집 소년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p>		<p>お爺さんは心配して病気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この噂を聞いた隣の家の少年がお爺さんを訪ねてきました。</p>
소문	【所聞】 うわさ	

<p>“아이참, 할아버지도. 뭘 그리 걱정하세요?”</p> <p>“어서 일어나셔서 삼년고개로 가지지요.”</p> <p>“거기는 왜?”</p> <p>“거기 가서 또 넘어지세요.”</p> <p>“뭐라고, 또 넘어지라고? 나더러 아예 죽으라는 거냐?”</p>	<p>「まったく、おじいさんも。何をそんなに心配しますか？」</p> <p>「はやく起きて三年峠にて行ってくださいね。」</p> <p>「そこになぜ？」</p> <p>「そこに行ってまた転んでください。」</p> <p>「何だって、また転べと？ 私に絶対に死ねといっているのか？」</p>	
아이참	まったく	
더러	~に に対して	
아예	最初から 絶対に	

<p>할아버지는 화를 벌컥 내었습니다.</p> <p>“할아버지, 한 번 넘어지면 삼 년은 사시니까, 두 번 넘어지면 육 년, 세 번 넘어지면 구 년 사실 게 아니에요?”</p>	<p>おじいさんはかっと怒りました。</p> <p>「お爺さん、一度転べば三年は生きるのだから、二度転べば六年、三度倒転べば九年生きるということと違いますか？」</p>	
벌컥	かっと	
더러	~に に対して	
아예	最初から 絶対に	

<p>할아버지는 소년의 말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p> <p>“그렇겠구나! 당장 가서 넘어져야겠다.”</p>	<p>お爺さんは少年の話がもっともらしいと考えました。</p> <p>「そうだね! すぐに行って転ばなくっちゃ。」</p>	
그럴듯하다	もっともらしい	

<p>할아버지는 고개 위에서 아예 데굴데굴 굴렀습니다.</p> <p>시간이 흘러 삼 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p> <p>할아버지가 삼년고개를 넘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p> <p>“허허, 이제췌 번 넘어졌으니 앞으로 백오십 년은 더 살겠군!”</p> <p>삼년고개에서 데굴데굴 구른 덕분이었는지 할아버지는 정말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p>	<p>お爺さんは、峠の上で最初からごろごろと転がりました。</p> <p>時が流れ、三年が過ぎたある日でした。</p> <p>おじいさんが三年峠を越えて突き出た石に引っかかてまた転んでしまいました。</p> <p>「はっは、もう五十回転んだので今後百五十年はもっと生きるだろう！」</p> <p>三年峠でごろごろ転がったおかげかおじいさんは本当にいつまでも生きたといえます。</p>	
데굴데굴	ごろごろ	
굴리다	転がす	
돌부리	突き出た石	

考え方の発想を変えると、人生も変わってくる。